

일 주 문

8·15 남북불교교동시법회 민족추진본부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8월 15일 '조국통일 기원 8·15 남북불교교동시법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봉행한다.

인드라마, 자연음식 강의 인드라마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8월 13-14일 남원 귀정사에서 '해각 스님과 함께하는 자연음식' 황도염색과 제철음식 강의를 진행한다. (063)626-0106

동포 청소년 한국불교문화연수 조계종 사회부장 혜경 스님은 7월 21-28일 미동부 거주 한인 2세 청소년들 20명을 초청해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국대 종학연구소 국제학술대회 동국대 종학연구소 소장 종호 스님은 8월 22-24일 '간화선의 원리와 구조'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EAIBYE 2011 Korea 캠프 국제선센터 주지 현호 스님은 8월 25-29일 동아시아권 청소년 불자간의 교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EAIBYE 2011 Korea 캠프'를 개최한다.

제7회 어린이생태학교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부설 어린이 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무등 스님은 제7회 어린이생태학교를 8월 5-7일 개최한다. (062)223-3623

선문화 정기총회 선문화 회장 욱문 스님은 8월 18-19일 영천 백흥암에서 해국 스님 초청 강연과 함께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독일 대학생 사찰음식 체험 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은 7월 22일과 8월 1일 각각 50명씩 수서동 범통사에서 독일 학생들에게 사찰음식을 강의했다.

금강대 손미나 학생, 日 국비 7년 장학생 선발 금강대 통상통역일어전공 4학년에 재학 중인 손미나 씨는 2012년 일본 정부에서 선발하는 문부과학성 장학생으로 7월 26일 최종 선발됐다. 손미나 씨는 일본 정부에서 7년간 매월 15만 2000엔(약 200만원)의 장학금과 연구생 2년·석사과정 2년·박사과정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천진영 기자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민추본 신임본부장 지홍 스님

"남북 교류와 우리민족 하나 되기를 위해 활동해 온 민추본의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공식이었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의 본부장에 지홍 스님(서울 불광사 회주·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은 7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자성과 쇄신결사 추진본부의 신임 상임운영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스님은 결사추진본부 상임운영위원 겸 민추본 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스님은 현재 지구촌 공생회의 이사, 환경정의와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불교계에서는 스님의 이런 활동 경험에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민간 차원의 활발한 교류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님은 현 정권의 가장 취약한 정책 중 하나가 대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만큼 경색된 대북 관계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많았던 것이다.

지홍 스님은 "민추본은 재해나 북측의 어려움이 있을 때 민간 차원에



"민간 지원 허용 다행"

교류, 활성화 위해 노력 다짐

서 지원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지원이 필요했는데 경색된 남북 관계 때문에 제때 지원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최근 그동안 금지했던 민간차원의 대북 지원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26

일 북측에 밀가루 300톤을 지원했다.

지홍 스님은 "경색된 관계가 해소되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종교인평화회의에서의 제안도 있었고, 우리도 대북 지원 방안에 대해 종단과 논의할 계획입니다"라고 밝혔다.

스님은 남북 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가지 행사를 준비 중이다. 8월 10-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6월 발간된 <북한의 전통사찰>에 게재된 사진을 전시한다. 사진전을 통해 북한과 북한 사찰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15일에는 '조국통일기원 8·15 남북불교교동시법회'를 개최한다.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동시법회는 올해 광복 66주년을 맞아 한층 더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신계사 보수 등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갈 계획이다.

지홍 스님은 "남북 관계를 잘 풀어가고,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결사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할 테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기범 기자

"제주 해군기지 절차 4대강보다 더하다"

불교환경연대 주경 스님

"국가안보를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우리가 바른 뜻을 갖고 싸우는 만큼 제주도는 아름다운 섬으로 남을 것입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사진)은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립을 추진 중인 해군기지 건설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 환경연대, 천주교 창조보존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등 5대 종단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는 7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종교환경회의는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이 환경 파괴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는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호지역과 상징성이 큰 섬이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는 강정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 지정 생태환경절대보호지역이며 생물권보존지역이다.

이 자리에서 스님은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주경 스님은 "종교인들이 이렇게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권력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즉각 석방해야 하고, 해군기지는 중단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불교의 생활화가 생태 환경문제 해법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 소백산지킴이 토론회서 주장

"불교의 자비와 연기사상이 생태·환경 문제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 뒷받침과 생활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사진)는 소백산지킴이(대표 무원)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불교의 생명 사상과 생태, 환경을 위한 역할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교수는 "최근 환경오염을 비롯한 특정 생물의 멸종위기 등은 원천적으로 산업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의한 것"이라며 "과학적 이론의 뒷받침이 없다면 개인의 윤리감정에 호소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생태·환경 문제는 공공적 성격의 집단윤리 문제로 그 원인과 처방이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개인 윤리나 의식 문제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조성택 교수는 "최근 환경문제의 해법이 불교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관심을 불교 교리의 생활화와 일상적 실천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수 서울대 철학과 교수도 주제



발표 '불교사상의 생태주의적 가치'에서 "한국 불교계의 환경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불교사회운동의 일환이다. 환경운동의 최종 목표는 생명평화운동으로 재정립해 더 큰 담론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백산지킴이는 천태종이 소백산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기구 발족 이후 황사·기름유출·원전 방사능누출 등 환경 문제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교의 생명관과 생태환경관에 기초한 생태·환경 담론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평택 명법사 여름방학 수련회 회향법회

평택 명법사(주지 순영)는 7월 24일 여름방학 수련회 회향법회를 병행 동 유지를 발표했고, 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 추진을 강행해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개발 때보다 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논의해 불교계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등 불교계 전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불교계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주경 스님은 또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자세 변화가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정부가 명심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추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민들과 대화해야 합니다."

조동섭 기자

포항불교사암연합회 효웅 스님 취임

포항불교사암연합회는 7월 26일 장성동 아모르웨딩에서 제12대 회장 효웅 스님 취임식을 열었다.

행사는 지역사암스님,지역기관단체장 등 사부대중 9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소통과 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 회장에 취임한 효웅 스님(포항 보경사 주지)은 취임 인사에서 "포항불교사암연합회의 결속과 함께 경북동해안지역(울진·

관세음보살)에 대해 범문했다.

한편, 명법사 총무 화정 스님은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의 한국 정 스님을 지도법사로 유치원생, 초등학생, 불교학생회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법회에서 초청법사인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33화신 32응신 25원통 6도응화신

영덕)불교계와 교류하여 연합지역불교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불교를 펴내는 어떤 세력들도 단호히 대처해 나아갔다"는 굳은 의지도 보였다.

이번 제12대 임원 구성은 종단을 초월하여 젊고 활기찬 인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행사 후 '다문화가정' 지원 성금 2000여 만원을 전달했다.

손은철 대구지사장

2011년 동산불교대학·대학원 신입생 모집

"최고의 교수진과 열정적인 강의로 불교인재 양성"

배움이란 머리론머리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동산대학이 29년의 역사와 그 바탕으로 20년 전 설립된 본 대학은 불교대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습니다. 대덕스님들과 석학들께서 펼치는 불자 지성인들의 수행과 진리탐구의 요람인 동산불교대학에서 끝없는 신심과 열정으로 크나큰 감동과 환희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불교학과 (2년과정)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Includes 1st and 2nd year courses with subjects like Buddhist History, Philosophy, and Practice.

불교학과 180명 : 목요일(오후 2시), 토요일(오후 6시), 통산반 : 8월 6일(토) 오후 5시 입학식 및 개강

불교관련학과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ourse, Professor, Class Time, and Class Content. Lists departments like Buddhist Psychology and Buddhist Education.

불교대학원(법사과정)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ourse, Professor, Class Time, and Class Content. Lists graduate programs like Buddhist Psychology and Buddhist Education.

동산불교교육원

Table with 5 columns: Department, Course, Professor, Class Time, and Class Content. Lists courses like Buddhist Psychology and Buddhist Education.

원서문의·교부처

본대학 사무처 TEL (02)732-1206,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www.dongsanbud.net

*특전사항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교과, 불교전문학사)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8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산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 Name and Description. Lists courses like Basic Buddhist Rituals and Advanced Buddhist Rituals.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1년 8월 3일까지

◆개강일시 : 2011년 8월 4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영합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교 교육과정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청진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